

전국 증가폭 이틀째 100명 아래...광주·전남도 소강세

누적확진자 광주 14명·전남 4명·전국 8천236명...사망 76명
정부, “집단시설 산발적 발생...장기전 대비 일상적 방역할 때”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소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900명대까지 치솟았던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이틀째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5일 0시부터 74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하루 증가 폭은 지난 14일 0시 기준 76명에 이

어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4명 가운데 42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경기 20명, 서울 6명, 부산 1명, 세종 1명 등이며, 광주·전남은 없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76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광주 14명, 전남 4명 등 전국적으로 총 8236명으로 집계됐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보다 303명이 추가돼 총 1137명이 됐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방역당국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장기전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심하게 실천하는 등 ‘일상적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집단시설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하고 있다”며 “전문가, 외국 전망을 종합했을 때 코로나19가 단기간 소멸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당연시되는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장·기관·학교의 근무여건이나 형태를 바꾸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 또 “각 사업장, 기관, 학교 등은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선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큰 부담 없이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지

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고위험군의 감염을 막기 위한 세심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성인, 학령기 아동 등은 대부분은 경증감염 상태이지만 이들이 가져 질한자나 고령층이 많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어르신은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 성인도 불필요한 의료기관의 면회, 집단시설의 방문 등을 최소화하고 영상 등을 활용해 상호 소

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내 방역 관리체계 강화는 물론 해외의 역유입을 경계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세계적 대유행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2~3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0만명당 발생률 0.21%...전남, 전국 시·도 중 가장 낮아

신속한 방역·검역 시스템 구축...지속적인 점검·보완 분석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지난 1일 이후 16일째 확진자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6일 자정 현재까지 확진자 4명 가운데 2명이 격리 해제 및 퇴원하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 주목을 받고 있다.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교류가 적어 감염원 노출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전남이 신속하게 방역 및 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의 우선 확보, 축제·모임의 선제적인 취소 또는 연기,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보완 등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6일 전남도,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자정 현재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 수는 8236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가 6066명

(73.7%)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은 제주와 함께 4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가운데 가정 적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로 살펴보면 0.21%에 불과해 전북(0.39%), 제주(0.60%)와 함께 전국에서 3곳만 1% 미만이다.전남도는 지난 1월 21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 19’ 대책을 지시한 뒤 같은 달 24일 감시체계 강화, 28일 방역대책본부 확대 구성, 2월 2일 총력대응 체제 구축 등이 나왔다.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신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2월 15일 나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는 전남도 신속대응팀과 순천시 역학조사반의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가 추가 감염과 집단감염을 예방했다.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연속해서 2·3·4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면서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해 간부공무원 1대1 전담제 등 새로운 대책들을 실시하기도 했다.김 지사 등 공직자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방역현장, 마스크 공장 등을 현장점검에 나선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편으로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세 감면, 피해회복능가 및 독거노인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장려, 관광진흥기금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대구·경북, 중국 등지는 물론 관내 사군에도 마스크, 손세정제에서 도시락까지 다양한 방역물품을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전남도 관계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전남의 발생률이 낮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전남의 방역체계를 이상없이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 특별입국절차 유럽 전역으로 확대

유럽발 입국자 확진 잇달아...전 세계 적용도 검토

유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에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을 오늘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0시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 노선에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

차가 적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기존 유럽 6개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과 중국, 일본, 이란 등 9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일차적으로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로 확대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발생률, 확진자 발생 경향과 규모, 각국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입국자는 약 1만1200명이고 이중 내국인이 약 7500명, 외국인이 약 3700명이다. 전체 입국자 중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사람은 3170명으로, 약 30%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중국 기부 마스크 도착 “힘내세요, 대한민국”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이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대한적십자사로 기부한 마스크 100만장 중 3만 4000여장이 광주전남지사에 도착했다. 16일 오후 적십자 직원들이 전남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과 취약계층 등 보낼 마스크를 분류해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인 입국제한 142곳...볼리비아 등 4곳 추가

명시적 입국금지 80곳·격리조치 17곳·검역강화 45곳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접어들어 가운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소폭 늘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심각한 상황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조치가 강화되는 양상이다.외교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42개 국가·지역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남미의 볼리비아는 한국

과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을 방문한 뒤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중국, 이란,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국에 이름을 올렸다. 남아공은 아울러 해당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중단하고, 입국 전 20일내 이들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의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페루는 국경 폐쇄에 따라 입출국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와 튀니지, 파나마는 자가격리에서 입국금지로 방침을 바꿨고, 아프리카의 가나와 케냐도 각각 신규 시증 발급 중단 및 자가격리 권고에서 입국금지로 수위를 높였다. 이로써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 지역은 전날보다 9곳이 증가해 전체 입국제한국의 절반을 훌쩍 넘긴 80곳에 이르렀다.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치를 하는 국가는 45곳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로 고수의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입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쓰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교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에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